

No. 2014-01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4. 01. 06

1. 일본경제지표

2. 2014년 일본경제전망

- ① 2013년도 일본경제
- ② 2014년도 경제전망
- ③ 2014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미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매도 증가로 약세
- 장기금리 : 엔저·주가 상승에 따른 국채매도 증가로 상승(국채가격 하락)세

구 분	12.24(화)	12.25(수)	12.26(목)	12.27(금)	12.30(월)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104.20	104.35	104.70	104.90	105.30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	-	1,015.27	1,010.68	1,001.90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5,889.33	16,009.99	16,174.44	16,178.94	16,291.31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680	0.695	0.710	0.705	0.735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3분기 실질 GDP성장율(2차 속도치)은 전기비 0.3%, 연율 1.1%로 1차 속도치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4분기 연속 플러스
- 2013년 11월 무역수지는 수출 감소와 원유 등 연료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13조 엔으로 확대
* 對한국 무역수지는 1.2천억 엔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			3.8			1.1(P)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60	61	59	-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69	72	72	-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4.57	4.64	4.33	-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2.72	3.29	3.10	-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479			-		
對한국 투자	(40)	7.7			9.1			8.6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0.3	0.1	0.2	0.0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4.1	4.0	4.0	4.0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1.6	5.9	▲1.3	-	-
엔화 환율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97.9	100.0	103.46
환율비교 (7월 환율대비)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1,090	1,064	1,022
외환준비고 (7월 환율대비)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12.7	12.8	12.8	-
국채금리(10년 연리%)	0.58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0.590	0.600	0.735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2차 속도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중소 모노크루리기업의 도전』 신금중앙금고지역중소기업연구소, 12월28일
*출처: <http://www.scbri.jp/PDFsangyoukigyousc79h25F09.pdf>

2. 2014년 일본경제 전망

- 2013년도 일본경제는 금융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3분기에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2분기 고성장으로 연간 2.6%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 2014년도에는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으로 2013년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나 이에 관한 일본정부와 민간싱크탱크 간의 전망이 엇갈림
 - 민간싱크탱크는 소비세증세로 인하여 개인소비가 감소하여 0.7%~0.8%의 GDP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비하여,
 - 일본정부는 경제대책과 임금인상 촉진 노력 등으로 개인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고 1.4%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일본정부는 2014년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일본부흥 전략을 가속화·강화할 방침
 - 기술개발과 산업구조고도화 등을 통한 성장력 강화와 임금상승, 제조업의 공동화방지를 위해 민간투자를 환기시킬 수 있는 성장전략의 구체화 및 실행이 과제

1 2013년도 일본경제

□ 경기회복과 고성장

- 2012년 2분기와 3분기에 마이너스를 보인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2년 4분기에 연율 0.6%의 플러스로 반전되어, 2013년 1분기에는 4.5%, 2분기에는 3.6%의 고 성장을 보임
- 3분기에는 성장률이 1.1%로 둔화되었으나 1분기와 2분기의 고성장에 대한 반동일뿐 여전히 경기회복이 지속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3년도 실질 GDP성장률을 2012년도의 1.2%를 크게 상회하는 2.6%로 전망

□ 아베노믹스의 기여

- 2013년 일본경제의 회복을 가져다준 최대 요인은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탈출에 목표를 둔 아베노믹스에 있음

- 아베노믹스는 목표달성을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기 위한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가동
- 3개의 화살 중, 2013년 경기회복에 가장 기여한 것은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금융정책임
 -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2년간 2%의 물가상승을 목표를 제시하고 통화공급량을 2년간 2배로 늘리는 새로운 차원의 금융완화를 시작
 - 그 결과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이 2012년말 80엔대에서 2013년 4월 초에 100엔 정도로 급속도로 엔고가 수정되었고, 이후 100엔대의 엔화환율이 계속됨
 - 엔저에 의한 수출기업의 채산성 개선으로 2013년 초부터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함에 따라 자산효과 등을 통해 소비자심리가 개선되고 개인소비와 주택투자가 회복
 - 개인소비의 회복에 의해 비제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주가상승과 고용회복을 통하여 다시 개인소비가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
 - 한편, 장기금리는 금융완화 직후 불안정한 현상을 보였으나, 이후 저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저하에 기여
- 두 번째 화살에 의한 공공투자 확대도 경기부양에 기여
 - 기동적인 재정정책 역시, 2012년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의한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2013년 일본경제의 회복에 기여
 - 이토츠허제연구소에 따르면, 공공투자는 2013년 3분기까지 1년간 19% 증가하여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는데, 2013년 3분기 경제성장의 1/3이 공공투자에 의한 부분임
 - 다만, 기동적인 재정정책에 의한 공공투자확대가 재정규율면에서는 충분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 디플레이션의 탈출 조짐 확산

-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한 디플레이션 탈출도 2013년에 큰 진전을 보임
 - 소비자물가승율이 2012년 12월 ▲0.1%에서 2013년 10월에는 0.9% 플러스로 반전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엔저와 국제 원재료가격 상승의 영향에 의한 에너지와 식품가격의 상승에 있음
 -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플러스권에 진입, 디플레이션 탈출을 향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이 같은 물가상승율에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기대상승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본은행에 의한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금융완화가 경제주체들의 기대물가상승율을 끌어올렸고, 엔저 등의 영향에 의한 실제 물가상승율의 상승도 기대물가상승율을 끌어올렸음
- 기대물가상승율의 상승으로 기업의 가격인상을 가계가 받아들일 여건이 정비됨에 따라,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임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소비자물가가 5년만에 0.7%의 상승으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

㉔ 2014년도 경제전망

□ 일본 정부와 민간의 온도차

- 일본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14년도의 실질 경제성장율을 1.4%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0.7%~0.8% 성장을 예상한 민간 싱크탱크에 비하면 낙관적인 전망이다
- 일본정부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호조에 의한 내수주도의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말 소비세율을 추가인상 (8%에서 10%)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어 정책적 목표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정부와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전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개인소비임
- 민간싱크탱크의 전망치는 ▲0.7%~▲0.8%인데, 이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에 더하여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임
- 일본정부의 전망치는 플러스 0.4%로 근로자 수와 임금 모두 순조롭게 증가하여 증세 후에도 소비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일본 내각부는 판단하고 있음

2013/2014년도 일본경제전망

	2013년도	2014년도		
	일본정부	일본정부	민간 싱크탱크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실질경제성장율(%)	2.6	1.4	0.7	0.8
개인소비(증가율,%)	2.5	0.4	▲0.8	▲0.7
설비투자(증가율,%)	0.4	4.4	3.5	3.7
수출(증가율,%)	4.0	5.4	5.9	6.0
수입(증가율,%)	4.2	3.5	2.7	2.9
소비자물가상승율(%)	0.7	3.2	2.6	-
완전실업율(%)	3.9	3.7	3.8	-
환율(엔/미달러)	-	-	100~106	-
경상수지(조엔)	4.2	4.7	-	-
무역수지(조엔)	▲10.1	▲10.0	-	-

주: 민간경제연구소는 15개 연구기관 평균, 이코노미스트는 41명의 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사, 내각부, 일본의 민간경제연구기관 발표자료

- 증세에 따른 소비감소 방지노력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경영자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 회의를 통하여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촉구, 임금상승을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게 할 의도임
- 경제대책에 포함된 현금지급도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임
- 일본정부의 시나리오는 경제대책과 정부의 임금인상 촉진 등의 정책효과를 민간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음
- 민간싱크탱크가 예상하는 경제대책의 GDP증대효과는 0.5%로 일본정부의 0.7%를 하회하고 있는데, 그만큼 임금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내수주도의 성장에 기대

- 2014년 8월 시점에서 일본정부는 1%의 실질 GDP성장을 예측한 바 있음
- 내수의 기여도 0.4%포인트인데 비하여 외수의 기여도가 0.6%포인트로서, 수출이 회복되어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외수주도형을 예상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로 엔저하에서도 수출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았음
- 이번 전망에서는 일본정부는 8월 시점보다 외수의 기여도를 낮추고 설비투자와 개인소비의 증가율도 하향수정
- 그러나 전체 GDP성장률은 1%에서 1.4%로 높였는데, 12월 5일 발표한 5.5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 효과 등이 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것임
- 일본정부의 2014년도 실질경제성장율 전망치 1.4%의 기여도를 보면, 개인소비와 공공투자 등 국내수요가 1.2%,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등 해외수요의 0.2%를 크게 상회할 전망
-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복구와 그동안 경제대책으로 공공사업 예산이 확대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공사가 여의치 않음
- 2012년도 결산에서 공공사업비 중 3.8조 엔을 사용하지 못하고 2013년으로 이월된 점에 비추어, 이번 경제대책에 의한 효과는 불투명
- 일본정부는 2014년 말에 소비세율을 2015년에 10%로 인상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정부 일각에서는 2014년 소비세 인상의 역효과를 극복하고 안정 성장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증세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음

□ 국제수지 및 환율

- 무역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적자 축소와 함께 경상수지흑자가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명목GDP의 0.9% 정도)
- 엔화 환율은 민간연구기관들이 미달러당 100엔~106엔의 엔저가속을 예상하고 있는데, 다음 2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음
 - 2014년 봄 이후 미·일의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만약 2%의 물가상승 시나리오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완화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 무역수지는 2013년 11월까지 17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2013년 연간으로 과거 최대 적자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큼

③ 2014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1)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 일본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움직임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일본부흥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임
 - 산업경쟁력강화법, 국가전략특구법의 적극적 활용, 정책자원의 중점적 배분 등에 의해 일본부흥전략에 포함된 액션플랜을 강력히 추진
- 동시에 정부, 경영자, 노동자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연대함으로써, 기업수익 확대→임금상승과 고용·투자 확대→소비와 투자의 증가→가일층의 기업수익 확대의 선순환 실현을 목표
- 나아가 2014년 4월 실시하게 되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가수요와 그 반작용에 의한 감소를 완화하여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후 경제성장력의 기반강화와 선순환 실현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대책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실행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기초적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2015년도까지 2010년도에 비해 적자의 대GDP비율을 반감, 2020년까지 흑자화를 목표
 - 2014년도 예산은 「당면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을 비롯한 의무적인 경비지출도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
- 일본 정부는 이상과 같은 대응을 통하여 디플레이션 탈피·경제재생과 재정재건화를 양립시킬 계획임
 - 일본은행에 2%의 물가안정 목표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할 것을 기대

2) 과제

□ 성장력 강화

- 일본정부가 발표한 경제대책가운데, 경기대책으로서 즉효성이 높은 공공사업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정비와 지진피해복구사업 등이 포함된 2조엔 정도의 규모임
- 과거의 소비세 증세 경험을 고려하면, 증세 직후 2014년 2분기에 예상되는 수요감소는 약 3.5조엔(가수요의 반동에 의한 감소분 3조엔, 실질소득 감소에 의한 감소분 0.5조엔)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경제대책은 증세 후 수요 감소분을 상당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경제대책에는 장기적인 성장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기술개발 촉진과 해외사업 추진, 농림수산업의 고도화 등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임
 - 성장력 강화는 중요한 정책목표인데도 사업 내용을 보면, 긴급성이 높지 않은 것이 많고, 재정규율이 이완될 우려도 있는데다, 성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예산배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임
 - 이에 기술개발과 산업구조고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인력배치·조직설계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 및 농업분야 등의 암반규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을 한층 가속화해야만 한다는 것임

□ 해외생산 가속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방지

-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로 엔저 하에서도 수출수량이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하게 되는 상황이 확대되면 공동화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과거와는 달리 최근 일본경제는, 엔저와 해외수요 확대가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경로 중, 수출 및 국내생산 증가를 통한 경로가 약해지고 있음
 - 대신 수출채산성 개선과 해외현지법인의 수익환류에 의한 기업수익 확대가 주가상승을 가져오고, 주가상승에 의한 자산효과를 통하여 개인소비 등 국내 수요가 자극되는 경로에 의존하고 있음
 - 반면, 수출수량은 증가하지 않고 제조업의 국내생산도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에 의한 설비투자는 확대되지 않고 고용수요도 발생하지 않음
- 이에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민간투자 환기를 위한 성장전략」이 조기에 구체화되어, 외국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사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일본 국내에 새로운 분야의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나가야만 한다는 지적임

□ 임금상승

-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임금상승임
 - 이토츠허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13년 10월 평균임금은 전년비 0.1%로 4개월만에 플러스로 반전되기는 했으나, 여기에는 소정외급여가 5.4%의 증가율을 보였던 영향이 크며, 임금동향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정내급여는 0.4% 하락
 - 파트타임노동자의 비율 상승에 따른 임금하락 압력과 함께,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기업들이 임금상승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2013년 일본경제가 회복움직임을 보이고 보인 것은, 추가상승의 영향도 있으나, 비제조업의 개인소비 증가와 고용환경 개선이 상호 작용하는 선순환이 기능했기 때문임
- 그러나 임금상승이 진전되지 않으면, 선순환이 중단되어 버리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임금상승에 선행하여 물가상승율의 상승은 최우선과제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과도기적인 움직임으로서 불가피함
 - 그러나 임금이 상승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물가상승율의 상승은 실질임금을 떨어트려 국민생활을 압박할 뿐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함
 - 특히 2013년 후반에는 실질임금의 급속도로 하락함에 따라 2014년 이후에는 물가상승율에 맞추어 임금상승을 조기에 실현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임금상승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일본경제의 회복이 지속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